

- 주요 뉴스: 미국, 자동차 관세의 일시 면제를 시사. 반도체 관세는 다음 주 발표할 계획
 - 미국 뉴욕 연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소비자의 고용 전망 등도 악화
 - 연준 월터 이사,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 IMF는 트럼프發 무역전쟁 경고
 - 중국 3월 수출, 전년동월비 큰 폭 증가. 3월 위안화 신규대출도 확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관세 유연화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8%], 달러화 약세[-0.4%], 금리 하락[-1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일부 전자제품 상호관세 유예 조치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주식시장 영향 등으로 2.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세 지속
유로화 가치는 약보합, 엔화 가치는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월터 이사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ECB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6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17.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0.5원, 0.25% 하락). 한국 CDS 하락

		4/14일	4/11일	전일대비			4/14일	4/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406.0	5,363.4	+0.79%	국채 금리 10y	미국	4.37%	4.49%	-12bp
	유럽	499.89	486.80	+2.69%		독일	2.51%	2.57%	-6bp
	중국	3,262.8	3,238.2	+0.76%		영국	4.66%	4.75%	-9bp
	일본	33,982	33,586	+1.18%	CDS 5y	한국	35bp	37bp	-2bp
	한국	2,455.9	2,432.7	+0.95%		중국	70bp	75bp	-5bp
환율	달러지수	99.68	100.10	-0.42%	위험 지표	EMBI+	-	429	-
	유로화	1.1351	1.1355	-0.04%		VIX	30.89	37.56	-17.76%
	엔화	143.06	143.54	+0.34%		WTI유	61.53	61.50	+0.05%
	위안화	7.3095	7.2921	-0.24%	원자재	구리	462.6	452.3	+2.27%
	원화	1,424.1	1,449.9	+1.81%		금	3,210.9	3,237.6	-0.8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자동차 관세의 일시 면제를 시사. 반도체 관세는 다음 주 발표할 계획

-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항목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대답. 이번 발언은 수입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일시 면제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였고, 이에 증시에서도 해당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
-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는 다음 주에, Apple 아이폰에 대한 관세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 다만 반도체와 아이폰에 대한 관세에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시장에서는 관세의 일부 면제 가능성을 기대. 의약품의 경우 멀지 않은 미래에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첨언
- 한편 백악관의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은 10개 이상의 교역국과 무역협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EU와의 협상에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강조. 아울러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소비자의 고용 전망 등도 악화

- 소비자 대상 3월 조사에서 1년 인플레이션 기대(연율)는 3.6%로 전월(3.1%) 대비 올랐고, 이는 '23년 10월 이후 최고치. 아울러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 한편 3년 후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과 동일(3.0%→3.0%)했고, 5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하락(3.0%→2.9%)

■ 연준 월러 이사,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 IMF는 트럼프發 무역전쟁 경고

-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도에 따른, 대규모 관세(평균 25%의 관세가 지속) 및 소규모 관세(10%의 관세가 일부 유지되고 이외의 부분은 철폐)라는 2개의 시나리오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일시적이라고 설명. 특히 대규모 관세 시나리오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 높아졌다가 26년에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IMF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전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최근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Goldman Sachs, 1/4분기 이익은 예상치 상회. 트레이딩 부문이 호조

- 1/4분기 주당순이익과 매출은 14.12달러, 150.6억달러로 예상치(각각 12.35달러, 148.1억달러) 대비 높은 수준.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이익은 15%, 매출은 6% 증가. 부문별로는 트레이딩 부문이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주가 역시 1.9% 상승

■ 중국 3월 수출, 전년동월비 큰 폭 증가. 3월 위안화 신규대출도 확대

- 3월 수출은 3139.1억달러로 전년동월비 12.4% 증가했고, 수입은 4.3% 감소한 2112.7억달러를 기록. 특히 수출이 예상과 달리 큰 폭 증가했는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한편, 3월 사회융자총량은 5.89조위안으로 전년동월비 1.06조위안 늘었고, 같은 달 위안화 신규대출 또한 3.64조위안으로 전년동월비 0.55조위안 증가. 이번 결과는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일본 총리, 對美 보복 관세 반대. 국익을 위해 신중하게 협상에 임할 방침

- 이시바 총리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다만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지을 생각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향후 경제 및 물가 전망을 미리 단정 짓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목표(연율 2%)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정책 기조를 통화완화로 다시 선화할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안정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

■ OPEC,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 하향. 트럼프發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 증폭

- 금년과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일일 13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이전 대비 약 15만배럴 줄어든 수준. 최근 글로벌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원유 수요 역시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수입물가 및 4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연준 쿡 이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 - The Economist

(Short-term pain will lead to long-term gain, says Trump. Really?)

-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과도기적 비용'이라 언급하며 단기 고통 후 장기 혜택을 약속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 단기적 영향으로는 소비자심리지수의 큰 폭 하락과 인플레이션 기대의 급등 등이 거론. 특히 향후 1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6.7%로 40년래 최고 수준
- 한편 장기적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영향이 예상. 4%p의 관세 인상은 5년 후 0.4%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 실효관세율은 작년 2.5%에서 최근 20% 이상까지 상승(World Bank). 또한 향후 30년간 GDP 8% 감소, 임금 7% 하락 등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Penn Wharton Budget Model)

■ 미국 달러화 약세, 물가와 재정건전성 고려 시 경제에 부정적 요인 - 블룸버그

(Weak Dollar Wishes Are Scary When Granted)

-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화지수는 약 8.5% 하락.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弱달러를 선호해왔으나,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재정적자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급격한 달러화 약세는 정부의 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
- 달러화 약세 상황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또한 달러화 가치 8.5% 감소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년물 국채에서 발생하는 2년 동안의 이자를 무효화시키는 수준으로 재정적자 상황에서 부정적. 이러한 弱달러는 현재의 정책 혼선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지속될 소지

■ 중국의 대규모 미국 국채 매도, 미국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소지 - 블룸버그

(Why Wouldn't China Weaponize Its \$760 Billion Treasury Ho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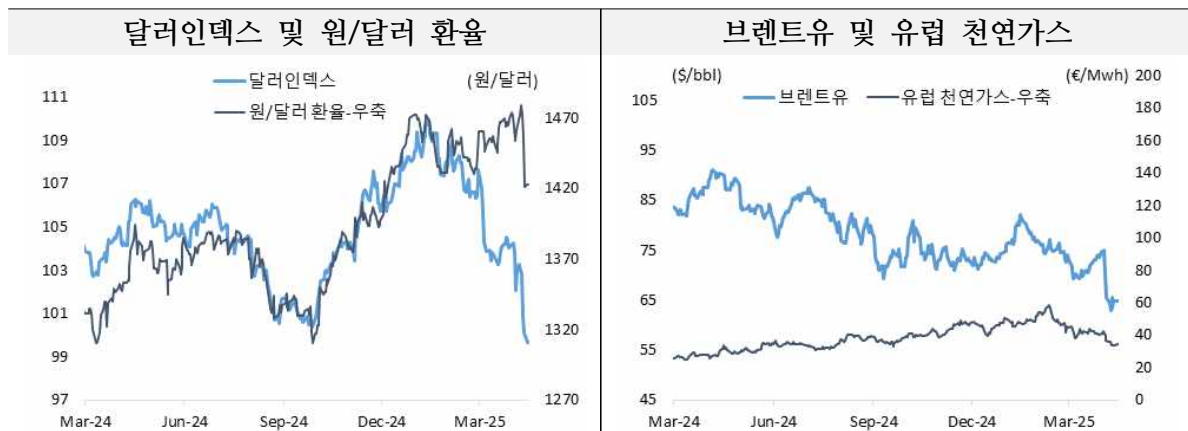
- 지난주 10년물 국채금리가 50bp 급등한 가운데, 아시아 시간대에 변동성이 집중되어 중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제기. 중국은 세계 2위의 미국 국채 보유(7,600억 달러 규모) 국가이며, 이를 무기화할 수 있는 상태. 특히 트럼프가 국채금리의 급등 이후 일부 관세를 유예한 것은 미국이 채권시장 불안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노출
- 한편 재무부는 올해 신규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금리가 1%p 상승할 때마다 약 1,000억 달러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 중국은 일부 매도만으로도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

- 중국의 對美 무역전쟁, 강력한 중국산 제품 수요 등으로 유리한 입장 - Financial Times
(Why Xi holds a stronger hand than Trump)
 - 트럼프와 측근들은 중국의 對美 수출 규모가 미국의 對中 수출 규모의 5배로 관세전쟁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힘의 균형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 첫째, 미국 내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한 소비 수요가 존재하며, 가격 인상 및 제품 부재 시 상당한 소비자 타격 예상
 - 둘째, 항생제 원료 및 첨단산업에 필요한 원재료 등에 중국은 자원 무기화가 가능. 셋째, 중국은 대규모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미국 금융시장 교란 여력 충분. 넷째, 중국 전체 경제 규모(약 15조달러) 대비 미미한 對美 수출(전체 수출의 14%) 의존도. 다섯째, 경제 혼란의 정치적 압력이 중국보다 미국이 빠르고 강할 소지
- 미국의 관세 정책, 제조업 부흥과 달러화 강세 동시 달성을 위해 변화가 요구 - WSJ
(Manufacturing and the Dollar)
- 금융시장 투자자, 관세로 인한 위험 프리미엄 증가 및 변동성 확대에 주의할 필요 - 블룸버그
(Steady Your Nerves For The Tariff Rollercoaster)
- 국제 유가, 미국중국 경기침체 현실화 시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 - 블룸버그
(Oil Is Cheap But It Isn't (Yet) a Bargain)
- 영국의 과도한 미국 의존도 축소, 유로존 및 중견국과의 협력이 중요 - Financial Times
(Britain should embrace European and other middle p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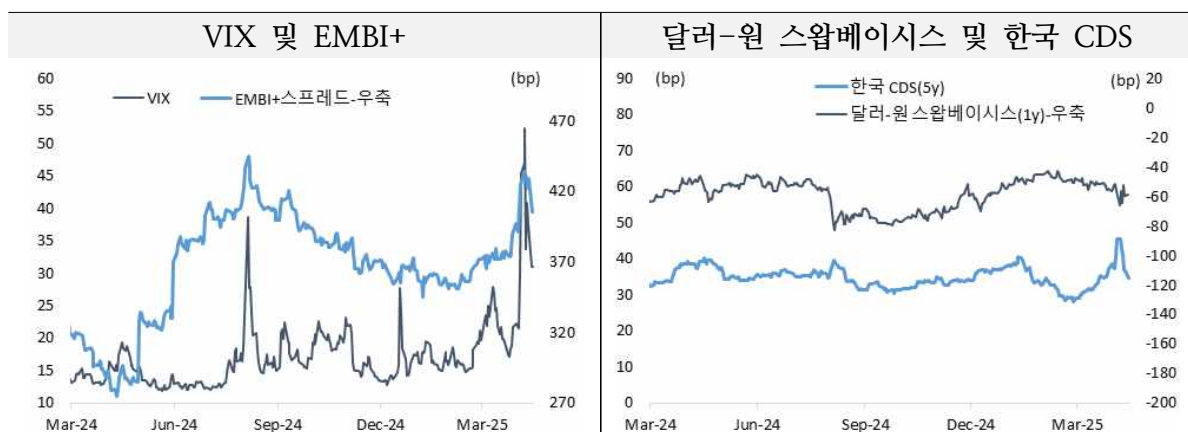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